

4(2)
-
131

회의문자①



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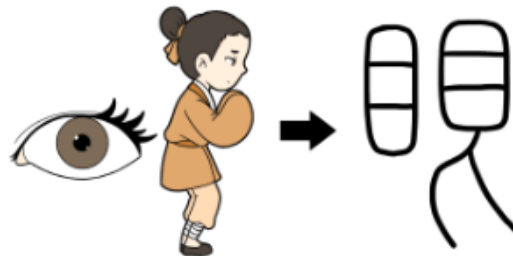
깊을 심

深자는 '깊다'나 '깊어지다', '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深자는 水(물 수)자와 深(점점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深자는 동굴 속으로 햇불을 들고 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점점'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深자에 水자가 더해진 深자는 '물이 깊다'라는 뜻이다. 사실 深자는 변화가 많았던 글자이기도 하다. 갑골문에서는 손으로 동굴 속을 더듬는 𡩺 모습으로 그려져 '깊다'라는 뜻을 표현했었으나 금문에서는 여기에 햇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소전에서는 水자가 더해지면서 '(물이)깊다'를 표현하게 되었다. 해서에서는 햇불이 木(나무 목)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참고로 소전에서 함께 파생된 글자로는 探(찾을 탐)자가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32

회의문자①



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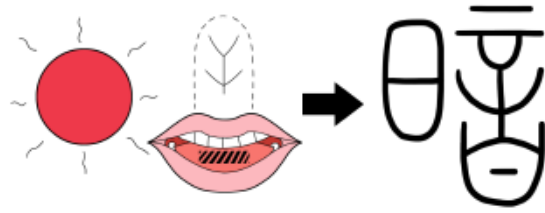
눈 안:

眼자는 '눈'이나 '눈동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眼자는 目(눈 목)자와 艮(그칠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艮자는 허리를 구부린 채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보다'라는 뜻만을 전달하고 있다. 眼자는 눈을 강조해 그린 艮자에 目자를 결합한 것으로 '눈'이나 '눈동자'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目자도 눈을 그린 것이긴 하지만 주로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眼자는 신체기관의 일부인 '눈'을 뜻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眼자와 유사한 글자로는 眠(잠잘 면)자가 있으니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소전	해서

4(2)
-
133

회의문자①



暗

어두울
암:

暗자는 '어둡다'나 '보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暗자는 日(해 일)자와 音(소리 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音자는 입을 벌려 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소리'라는 뜻이 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소리뿐이 들리지 않는다. 暗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된 글자로 '어둡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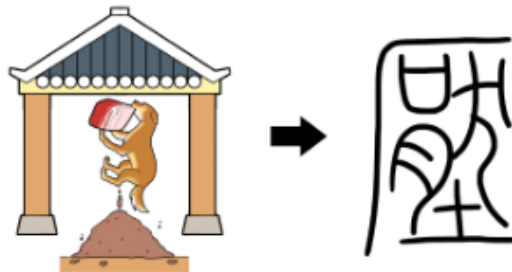
소전

暗

해서

4(2)
-
134

회의문자①



壓

누를 압

壓자는 '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壓자는 土(흙 토)자와 厭(싫을 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厭자는 집에 있는 개가 고기를 배불리 먹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누르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누르다'라는 것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배를 압박하고 있다는 뜻이다. 壓자는 이렇게 배가 불러 압박되는 모습을 그린 厭자에 土(흙 토)자를 더한 것으로 흙으로 '압박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壓

소전

壓

해서

4(2)
-
135

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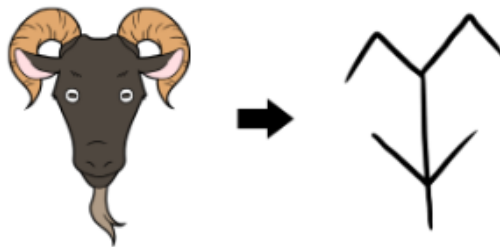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 (=水, 水) ⇨ 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夜(야)가 합(합)하여 이루어짐.

진 액

4(2)
-
136

상형문자①



羊

羊자는 '양'이나 '상서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羊자는 양의 머리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구부러진 뿔이 특징되어 있다. 양과 소는 인간이 가축으로 기른 가장 최초의 동물이었다. 특히 양은 뛰어난 고기 맛과 유용한 털로 인해 상서로운 짐승으로 인식되어 제사에 쓰이는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고대의 권력자들은 양의 뿔을 상서로움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다. 羊자가 부수로 쓰이는 글자들이 '양'이나 '양고기', '상서로움', '권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羊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하단의 획이 생략된 형태로 결합한다는 점이다.

양 양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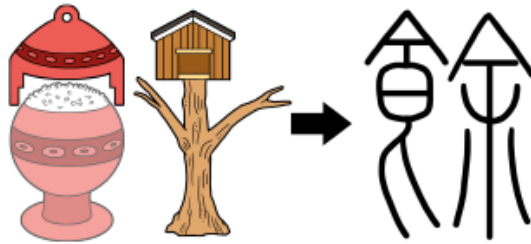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37

형성문자①



餘

남을 여

餘자는 '남다'나 '나머지', '여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餘자는 食(밥 식)자와 余(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余자는 나무 위의 오두막을 그린 것으로 '나'나 '남다', '여분'이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余자에 있는 '남다'나 '여분'이라는 뜻은 지금의 余자가 餘자의 속자(俗字)로 쓰이기 때문이고 본래의 의미는 '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余자는 발음요소일 뿐이다. 餘자는 '음식이 남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食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餘자는 단순한 의미에서 '여분'이나 '남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余자는 餘자의 속자로 쓰인다. 그래서 실제 쓰임에서는 余자와 餘자가 혼용되는 예가 많다.

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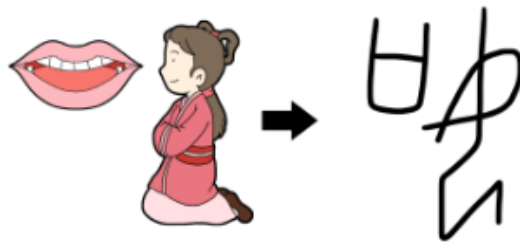
소전

餘

해서

4(2)
-
138

회의문자①



如

같을 여

如자는 '같이 하다'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如자는 女(여자 여)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口자는 사람의 입을 그린 것으로 '말'을 뜻하고 있다. 如자는 여자가 남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부권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가치관이 낳은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순종하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와 같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如

갑골문

如

금문

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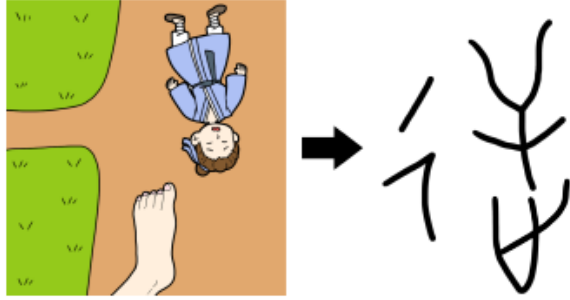
소전

如

해서

4(2)
-
139

회의문자 ①



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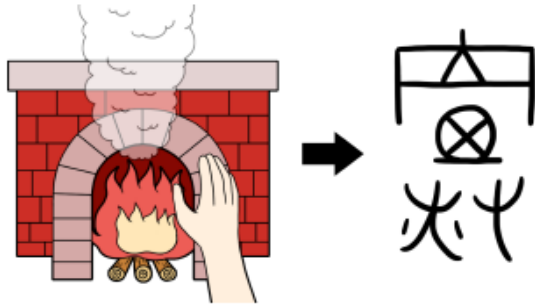
거스릴
역

逆자는 '거스르다'나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逆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𠂔(거스를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 그린 것으로 '거스르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거스르다'라는 뜻을 가진 𠂔자에 辶자를 결합한 逆자는 '길을 거스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逆자는 '역행(逆行)'과 같이 길을 거꾸로 나아감을 뜻하게 됐지만, 지금은 '거역(拒逆)'이나 '역전(逆轉)'과 같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거꾸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갑골문에서는 逆자가 원형 그대로 등장했었지만, 후에 𠂔자만 따로 분리되어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거스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40

회의문자 ①



煙

연기 연

煙자는 '연기'나 '안개', '그을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煙자는 火(불 화)자와 𤇀(막을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𤇀자는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煙자는 이렇게 아궁이를 그린 𤇀자에 火자를 더한 것으로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뜻하고 있다. 본래 금문에서는 손까지 그려져 있었으나 소전을 거치면서 생략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